

일부 경북지역 산업장의 제특성에 따른 건강진단과 보건관리 실태

김상순¹⁾ · 김정남²⁾ · 박 정³⁾ · 김옥란⁴⁾ · 차경미⁵⁾
곽오계⁶⁾ · 박경민⁷⁾ · 최연희⁸⁾ · 백경신⁹⁾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보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직업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복지를 최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는 것으로 채용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신적인 복지를 최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는 것으로 채용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¹⁾

그 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점은 산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는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²⁾³⁾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근로자의 보건관리 문제는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그들이 처하는 작업 환경 문제도 노동의욕의 향상이나 억제 또는 생산성에

관계하므로 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⁴⁾

이에, 199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업장 보건관리, 작업환경, 보건관계자 자격지정 및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보건상의 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시행령에 형식적으로 응하는 실정이며, 안전보건 관리 부분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보건관리자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보건관리가 등한시 되고 있는 산업장이 허다하다.⁵⁾

근로자의 보건관리가 국가인력 자원의 확보와 경제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산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장 보건관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산업장 보건관리 발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2)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3) 국군간호사관학교
4) 김천 간호전문대학
5) 포항 선린 여자전문대학
6) 대구 보건전문대학
7) 포항 선린 여자전문대학
8) 신일전문대학
9)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 일부 산업장의 보건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산업장 보건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보건 관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건강검진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다.
- 3) 산업장 보건관리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방법으로 시도하였으며 대구, 경북지역 총 9431개 산업장 중 보건관리자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49개 산업장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지역사회 간호학회가 제작한 보건관리자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8문항, 건강검진에 대한 14문항, 보건관리에 관한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대구, 경북지역 산업장의 보건관리 실태 및 근로자의 건강지식, 태도, 행위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0일까지 우선 전화를 이용하여 연구에 협조를 구한 다음, 보건관리자 설문지를 보건관리자에게 직접 배부하여 질문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III. 조사성적 및 고찰

A. 산업보건 관리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 산업체의 업종별 특성

조사대상 산업체의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제조업이 42.9%로 가장 많았고, 섬유업(20.4%), 식품업(14.3%), 전기전자업(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신업, 도소매업은 각각 4.1% 서비스업은 2.0%로 나타났다.

<표 1> 산업체 업종별 분류

종 류	N	%
제조업	21	42.9
섬유업	10	20.4
식품업	7	14.3
전기전자	5	10.2
통신업	2	4.1
서비스업	1	2.0
도소매업	2	4.1
기타	1	2.0
계	49	100.0

2. 조사대상 산업체의 규모

조사대상 산업체의 규모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수가 300-499명인 산업체가 32.7%, 500-999명인 산업체가 30.6%, 1,000명 이상인 산업체가 22.4%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산업체가 85.7%이었으며, 300명 미만인 산업체는 14.3%이었다.

<표 2> 근로자 수

인 원	N	%
300명 미만	7	14.3
300-499	16	32.7
500-999	15	30.6
1000 이상	11	22.4
계	49	100.0

3. 산업보건 관리자 현황

조사대상 산업체의 산업보건 관리자 배치 현황을 <표 3>에서 보면 산업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산업체는 40.8%로서 신용애(1985)⁶⁾의 94.6%와 문정순외(1987)⁷⁾의 59.9%, 이은주의(1989)⁸⁾ 86.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산업체는 100%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위생사가 배치되어 있는 산업체는 10.2%,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있는 산업체는 6.1%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산업체의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표 3-1>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산업체에서는 산업보건의사가 100%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문정순 외(1987)⁷⁾의 29.6%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300-499명인 산업체는 31.3%, 500-999명인 산업체는 20.0%, 300명 미만인 산업체는 14.3%의 배치율

을 보여 근로자수가 1,000명 미만인 산업체에서의 산업보건의사 배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호사는 신용애(1985)⁶⁾, 유승미(1985)⁹⁾, 우명숙(1986)¹⁰⁾, 권영숙(1987)¹¹⁾, 문정순외(1987)⁷⁾의 연구에서 산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배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100% 배치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본 연구대상이 산업간호사가 있는 산업장을 대상으로 택해서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산업위생사는 근로자수가 500명 미만인 산업체에는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500-999명인 산업체에 20%, 1,000명 이상인 산업체에 18.2%로 배치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간호조무사는 근로자수가 1,000명 미만인 산업체에는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1,000명 이상인 산업체에서 27.3%의 전담율을 보이고 있어 산업체의 주된 건강관리 인력은 산업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산업보건관리자의 현황

	산업보건의사 N(%)	산업간호사 N(%)	산업위생사 N(%)	간호조무사 N(%)	환경관리기사 N(%)
유	20(40.8)	49(100.0)	5(10.2)	3(6.1)	10(20.4)
무	29(59.2)		44(89.8)	46(93.9)	39(79.6)
계	49(100.0)	49(100.0)	49(100.0)	49(100.0)	49(100.0)

<표 3-1> 근로자수에 따른 산업보건관리자의 현황

근로자수	관리자	산업보건의사 N(%)	산업간호사 N(%)	산업위생사 N(%)	간호조무사 N(%)	환경관리기사 N(%)
	유무					
300명 미만	유	1(14.3)	7(100.0)	-	-	-
	무	6(85.7)	-	7(100.0)	7(100.0)	7(100.0)
	계	7(100.0)	7(100.0)	7(100.0)	7(100.0)	7(100.0)
300-499	유	5(31.3)	16(100.0)	-	-	1(9.1)
	무	11(68.6)	-	16(100.0)	16(100.0)	10(90.9)
	계	16(100.0)	16(100.0)	16(100.0)	16(100.0)	11(100.0)
500-999	유	3(20.0)	15(100.0)	3(20.0)	-	1(6.7)
	무	12(80.0)	-	12(80.0)	15(100.0)	14(93.3)
	계	15(100.0)	15(100.0)	15(100.0)	15(100.0)	15(100.0)
1000명 이상	유	11(100.0)	11(100.0)	2(18.2)	3(27.3)	8(72.7)
	무	-	-	9(81.8)	8(72.7)	3(27.3)
	계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계	유	20(40.8)	49(100.0)	5(10.2)	3(6.1)	10(20.4)
	무	29(59.2)	-	44(89.8)	46(93.9)	39(79.6)

4. 보건관리자의 연령별 분포

조사대상 산업체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의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4) <표 5>.

산업보건의사는 30대가 5명(25.0%), 40대가 6명(30.0%), 50세 이상이 9명(45.0%)으로 나타나 평균연령은 51.6세이었다.

산업간호사는 20대가 34명(69.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1명(22.4%), 40대가 4명(8.2%)으로 나타나 평균 연령은 26.5세이었다.

이는 권영숙(1986)¹¹⁾, 김순임(1989)¹²⁾, 정연강외(1987)¹³⁾, 김태숙외(1988)¹⁴⁾, 김현리(1989)¹⁵⁾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산업위생사는 20대 2명(40.0%), 30대 3명(60.0%), 평균연령은 30.4세이었다.

간호조무사는 20대가 3명(100.0%)으로 평균연령은 27.0세이었다.

환경관리기사는 20대가 6명(60.0%), 30대가 3명(30.0%), 40대가 1명(10.0%)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0.0세이었다.

<표 4> 보건관리자의 연령별 분포

	산업보건의사 N(%)	산업간호사 N(%)	산업위생사 N(%)	간호조무사 N(%)	환경관리기사 N(%)
20세 미만	-	-	-	-	-
20-29	-	34(69.4)	2(40.0)	3(100.0)	6(60.0)
30-39	5(25.0)	11(22.4)	3(60.0)	-	3(30.0)
40-49	6(30.0)	4(8.2)	-	-	1(10.0)
50세 이상	9(45.0)	-	-	-	-
계	20(100.0)	49(100.0)	5(100.0)	3(100.0)	10(100.0)

<표 5> 보건관리자 연령분포의 특성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최 대 치	최 소 치
산업보건의사	51.600	9.787	37.000	68.000	31.000
산업간호사	26.500	6.395	22.000	46.000	24.000
산업위생사	30.400	2.477	9.000	35.000	26.000
간호조무사	27.000	1.414	2.000	28.000	26.000
환경관리기사	30.000	6.092	19.000	41.000	22.000

5. 보건관리자의 현직 근무경력

조사대상 산업체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의 현직 근무 경력은 <표 6>과 같다.

산업보건의사의 경력을 보면 1-3년 미만이 7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과 7년 이상이 각각 4명(20.0%), 5-7년 미만이 5명(25.0%)으로 나타났다.

산업간호사의 경력은 권영숙(1987)¹¹⁾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 1-3년 미만이 19명(3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이상이 8명(16.3%), 3-5년 미만이 9명(18.4%), 1년미만이 8명(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위생사의 경력은 1-3년 미만과 3-5년 미만이 각각 2명(40.0%), 7년 이상이 1명(20.0%)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경력은 1-3년 미만과 3-5년 미만 그리고 5-7년 미만이 각각 1명(33.3%)씩이었다.

환경관리기사의 경력은 1-3년 미만이 5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이 2명(20.0%)이었으며, 1년 미만과 3-5년 미만 5-7년 미만은 각각 1명씩(2.0%)이었다.

〈표 6〉 보건관리자의 현직근무 경력

	산업보건의사 N(%)	산업간호사 N(%)	산업위생사 N(%)	간호조무사 N(%)	환경관리기사 N(%)
1년 미만	-	8(16.3)	-	-	1(10.0)
1-3년 미만	7(35.0)	19(38.8)	2(40.0)	-	5(50.2)
3-5년 미만	4(20.0)	9(18.4)	2(40.0)	1(33.3)	1(10.0)
5-7년 미만	5(25.0)	5(10.2)	-	1(33.3)	1(10.0)
7년 이상	4(20.0)	8(16.3)	1(20.0)	1(33.3)	3(20.1)
계	20(100.0)	49(100.0)	5(100.0)	3(99.9)	10(100.0)

6. 보건관리자의 근무유형

조사대상 산업체에서 산업보건의사가 상근하는 경우는 40.0% 이었으며, 상근하지 않는 경우는 60.0%로 나타났다.

산업간호사가 상근하는 경우는 85.7% 이었으며, 산업위생사는 60.0%가 상근한다고 응답 하였고, 간호조무사는 66.7%가 상근한다고 응답 하였으며, 환경관리기사가 상근하는 경우는 100.0%로 나타났다(표 7).

〈표 7〉 보건관리자의 근무 유형

	산업보건의사 N(%)	산업간호사 N(%)	산업위생사 N(%)	간호조무사 N(%)	환경관리기사 N(%)
상근	8(40.0)	42(85.7)	3(60.0)	2(66.7)	10(100.0)
비상근	12(60.0)	7(14.3)	2(40.0)	1(33.3)	-
계	20(100.0)	49(100.0)	5(100.0)	3(100.0)	10(100.0)

〈표 8〉

	총수	평균	범위	최대치	최소치
건강검진수진율(%)	49	94.314	50.0	100.0	50.0
2차정밀검사수진율(%)	49	7.629	18.866	19.706	0.840
색출검사결과 C판정율(%) C판정자 / 실제일반검진자수	49	43.858	300.00	300.00	-
C판정자 / 2차 정밀 대상 자수	49	1.487	7.407	7.407	-
색출검사결과 D판정율(%) D판정자 / 실제일반검진자수	49	22.186	100.00	100.00	-
D판정자 / 2차 정밀 대상 자수	49	0.905	11.765	11.765	-
D판정자의 조치율(%)					
근로시간 단축율	49	8.791	100.00	100.00	-
작업전환율	49	13.278	100.00	100.00	-
요양자율	49	58.069	100.00	100.00	-
기타	49	65.037	233.628	233.628	-
특수검진 대사자율(%)	49	98.648	15.0	100.00	85.0
특수검진 수진율(%)	49	9.508	37.879	37.879	-
특수검진결과 요주의자율(%)	49	0.759	10.0	10.0	-
특수검진결과 요양자율(%)					
특수검진결과 추후관리율(%)	49	8.224	88.710	88.710	-
통보에 그침	49	69.493	700.00	700.00	-
추적검사	49	3.099	16.667	16.667	-
작업전환	49	0.436	11.765	11.765	-
근로자시간 단축	49	75.937	750.0	750.0	-
근무 / 치료	49	0.216	5.0	5.0	-
휴직	49	-	-	-	-
산재보험치료	49	0.245	4.167	4.167	-
퇴직					

B. 건강검진 수진 및 결과처리

조사대상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일반 건강 검진 수진율은 94.31%이었으며, 1차 검진결과 2차 정밀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7.63%이었다.

2차 정밀검사를 받은 근로자들의 검진결과 C판정을 (요주의자)은 43.86%이었으며, D판정을(의중)은 22.19%로 나타났다. D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의 조치상황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근로자는 0.9%이었으며, 8.79%가 작업전환을 하였고, 13.28%가 요양하도록 조치되어졌다.

일반검진 대상자 중 65.04%가 특수검진 대상자이었고, 이중 98.65%가 실제로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검진결과 요주의자는 9.51%이었으며, 0.76%가 요양자로 판명되었다.

특수검진결과 후후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근무하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75.94%로 가장 높았고, 추적(재정밀) 검사를 받은율이 69.49%, 통보에 그치는 경우가 8.22%, 작업전환을 하는 경우가 3.01%이었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경우가 0.44%, 휴직이 0.22%, 퇴직하는 경우가 0.25%로 나타났고, 산재보험치료를 받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표 8>.

근로자들이 일반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은 각산업장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보건관리 대행기간에서 검진받은 경우는 10.2%로 나타났다<표 9>.

<표 9> 일반검진 받은 기관

종 류	N	%
지정병원	42	85.7
보건관리대행기관	5	10.2
기타	2	4.0
계	49	100.0

검진기관에서 2차 정밀검사시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는 방법은 개별통보가 91.8%로 가장 많았고, 8.2%는 집단통보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2차정밀검사 통보 방법

인 원	N	%
개별통보	45	91.8
집단통보	4	8.2
계	49	100.0

통보방법은 모든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경우가 61.2%이었으며, 유소견자에게만 개별통보하는 경우가 38.8%이었다.

검진결과를 회신받기까지의 기간은 검진 후 1개월 이내가 38.8%, 1-2개월이 36.7%이었으며, 2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24.5%이었다<표 12>.

<표 11> 특수검진 항목

	물리적인자 N(%)	분 진 N(%)	유기용제 N(%)	특수화학 N(%)	중금속 N(%)
예	29(82.9)	16(45.7)	18(51.4)	11(31.4)	7(20.0)
아니오	6(17.1)	19(54.3)	17(48.6)	24(68.6)	28(80.9)
계	35(100.0)	35(100.0)	35(100.0)	35(100.0)	35(100.0)

<표 12> 검진결과 통보 방법 및 회신기간

	통보방법(N=49)		회 신 기 간(N=49)		
	모든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	유소견자에게만 개별 통보	1개월 이내	1-2개월	2개월 이상
N	30	19	19	18	12
%	61.2	38.8	38.8	36.7	24.5

근로자들이 특수검진을 받은 항목을 보면 조사대상 산업체의 59.2%가 소음, 조명등과 같은 물리적 인자에 대한 검진을 받았고, 32.7%가 분진에 대해, 36.7%가 유기용제에 대해 검진받았으며, 특수화학에 대해서 22.4%, 중금속에 대해 14.3%가 검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보건관리자가 직업병유소견자나 또는 의심되는 근로자를 발견하였을때 특수검진을 의뢰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 조사에서 95.9%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경우는 4.1%이었다(표 13).

〈표 13〉 보건관리자의 특수검진의뢰 가능 여부

	N	%
가능	47	95.9
불가능	2	4.1
계	49	100.0

C. 산업장 보건관리 수준

조사대상 산업체의 의무실 현황을 살펴보면(표 14) 의무실이 있는 산업체가 89.8%로 나타나 양경희(1983)¹⁶⁾의 29%, 유경혜(1985)¹⁷⁾의 66.1%, 문정순, 김순례(1985)⁷⁾의 46.1%보다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84.1%로 나타났다.

〈표 14〉 의무실 유무 및 단독사용 여부

	의무실(N=49)		의무실 단독 사용(N=49)	
	유	무	예	아니오
N	44	5	37	7
%	89.8	10.2	84.1	15.9

조사대상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는 곳은 81.6%로 유승미(1985)⁹⁾의 82%

와 비슷한 율을 보이며, 유경혜(1985)¹⁷⁾의 91.1%, 문정순의(1985)¹⁶⁾의 96.1%보다는 저조한 율을 보이고 있다.

지정병원 종류를 보면 의원이 지정된 산업체가 32.7%가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18.4%이었다. 이는 정연강의(1987)¹³⁾의 의원 15.4%, 종합병원 36.3%와는 상이한 결과라 여겨진다(표 15).

〈표 15〉 지정병원 유무 및 종류

		N	%
지정병원	유	16	32.7
	의원	8	16.3
	종합병원	9	18.4
	기타	7	14.3
	무응답	9	18.4
	무	9	18.4
계		49	100.0

산업장의 보건관리는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 5문항, 산업장 건강사정에 대한 내용이 1문항, 건강진단에 대한 내용이 2문항, 작업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5문항으로 각 1문항에 대해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0점, 가끔 실시하는 경우를 1점, 항상 실시하는 경우를 2점으로 하여 보건교육이 12점, 산업장 건강사정이 2점, 건강진단이 4점, 그리고 작업환경관리가 10점으로 총 28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총산업장의 보건관리 내용 중 건강진단(1.40점)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어 이것은 유경혜의(1985)¹⁷⁾ 연구에서 산업보건 요원이 건강진단 업무에 주력한다고 지적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작업환경관리(1.12점)이며, 산업장 건강사정(0.83점)이 가장 적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장 보건관리의 총평균의 총평균이 1.03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 보건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16).

〈표 16〉 산업장보건관리 내용

	총 수	평 균	범 위	최 대 치	최 소 치
총산업장보건관리	49	1.033	1.786	2.000	0.214
보건교육	49	0.926	2.000	2.000	-
산업장 건강사정	49	0.833	2.000	2.000	-
건강진단	49	1.398	2.000	2.000	-
작업 환경 관리	49	1.115	2.000	2.000	-

IV. 결 론

본 연구는 산업장의 건강검진 형태와 보건관리 정도를 파악하여 산업장근로자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대구, 경북지역의 49개 산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지역사회 간호학회가 제작한 질문지를 통하여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0일까지 보건관리자에게 직접 배부하여 질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즉시 회수하였으며,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한 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장의 일반적 특성

산업장의 업종별로 제조업이 42.9%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수는 300인 이상인 산업체가 85.7%이었다.

2. 보건관리자 현황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산업체에서는 모두 산업보건의와 산업간호사를 두고 있었으나 의사가 상근하는 경우는 40.0%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간호사는 (85.7%) 대부분이 상근하고 있었다.

산업위생사(60.0%), 간호조무사(66.7%), 환경관리기사는(100.0%)의 상근율을 보였으며, 산업보건의사의 평균연령은 51.6세 였으며 산업간호사의 평균연령은 26.5세 이었다.

현직 근무경력은 산업보건의사, 산업간호사, 산업위생사, 환경관리기사 모두 1-3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3. 건강검진 및 추후관리

근로자들의 일반검진 수신율은 94.31%였고, 이중 2차 정밀검사 결과 C판정(요주의자)율은 43.86%, D판정(의중)율은 22.19% 이었으며, D판정자의 13.28%가 요양하도록 조치되었고, 8.7%가 작업전환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근로자는 0.9%이었다.

특수검진 대상율은 65.04%이었고, 실수진율은 98.65%이었으며, 특수검진결과 추후관리는 근무하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75.94%로 가장 많았다. 특수검진 항목은 물리적인자에 대한 검진이 가장 많았고(59.2%), 특수검진 결과 통보방법은 대부분 모든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였으며(61.2%), 특수검진 결과 회신기간은 1개월이내가 38.8%, 1-2개월 이내가 36.7%로 대부분 2개월 이내에 회신되었다.

보건관리자가 직접 발견한 직업병 유소견자의 특수검진 의뢰 가능성은 95.9%이었다.

4. 산업장 보건관리 수준

의무실은 89.8%가 있었고, 그중 단독 사용하는 경우가 84.1% 이었으며, 지정병원이 의원인 산업체가 많았다(32.7%).

산업간호사의 업무수행 정도는 건강진단(1.4점)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산업장 건강사정이 (0.83)점으로 가장 적게 실시되고 있었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추후관리에 있어 보건관리나 사업주의 적극적이며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산업장의 건강관리는 산업간호사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간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이 보완되어야 하며, 산업간호사의 질적인 간호제공을 위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보수교육 또는 전문적인 교육 Program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조규상, 산업보건학, 수문사, pp. 11. 1986
- 조규상, 구주와 미국의 산업보건, 한국의 산업의학5(4):1-4, 1966.
- 정규철,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조사, 한국의 산업의학 8(1):25-34, 1969
- 권이혁, 공중보건학, 동명사, 서울 pp. 318-320, 1963
- 김정순, 우리나라 산업장 보건관리의 현황과 사업방향, 보건학논문집 29(1) pp. 95-97, 1992
- 신용애, 산업보건인력의 배치근거와 분포양상,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5-36, 1985
- 문정순, 김순례, 산업체근무 건강관리보전 담당자의 근무실태조사, 최선의학 30(2) pp. 55-57, 1987
- 이은주, 장성훈, 송동빈, 산업장 보건관리자 운용실태에 대한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1) pp.34. 1989
- 유승미, 산업장근무간호원의 기능 및 활동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 1985
- 우명숙, 산업장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산

업보건(8), 1986

권영숙, 인천시 산업간호원의 배치현황 및 산업간호의
제공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인천간전대 논문집
pp. 7-8, 1987

김순임, 충청남도 산업간호사의 활동현황에 관한 조사
연구, 대전간전대 논문집 제13집, pp. 72-74,
1987.

정연강외, 서울시 간업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26(5), pp. 13-14, 1987

김태숙, 김종임, 충청지역 산업보건관리 실태와 건강관
리 보건담당자의 사기에 관한 조사연구, 충남의대
잡지, 15(1), pp.24, 1988

김현리, 일부지역 산업보건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54(5), pp. 326, 1989

양경희, 서울시내 모 수출산업공단 근로자의 건강관리
실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pp. 169.
1983.

유경혜, 제조업에서의 촉탁보건관리자와 건강관리 보건
담당자의, 연대보건대학원 석사논문, pp. 13, 1985.

- Abstract -

A Study on The Status of Health Examination and Health Management of Industrial Companies in the Taegu and Kyungbook Areas

Kim, Sang Soon¹⁾ · Kim, Jung Nam²⁾

Park, Jung³⁾ · Kim, Ok Ran⁴⁾

Cha, Kyung Mi⁵⁾ · Kwak, Ou Ke⁶⁾

Park, Kyung Min⁷⁾ · Choi, Yoon Hee⁸⁾

Bak, Kyung Shin⁹⁾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status of health examination and health manage-
ment of industrial companies located in Taegu
and Kyung book areas. It will provide basic in-
formation for the provision of effective health
management of industrial workers. 49 companies
were selected as a study sample group, and data
was collected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was develop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y of Korean
Nursing. The health managers of the companie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The data was gath-
ered from Dec 20, 1992 to Jan 20.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as follows :

1. The Study sample showed 85.7% manufactur-
ing companies having 300 or more workers.

2. All the companies had health managers, and
companies which had 1,000 or more workers had
industrial physicians and nurses. Only 12.2% of
the industrial physicians were full time
employees, and almost all industrial nurses were
full time employees. Except for industrial
physicians and nurses, the proportion of
hygienists (6.1%), nurses aids (4.1%), and en-
vironmental engineers (22.4%) with full time em-
ployment status was very low. The mean age of
industrial physicians was 49.2 while that of indus-
trial nurses was 27.2. The length of work
experiences currently ranges for 1 to 3 years for
all health workers : physicians, nurses, hygienists,
and environmental engineers.

3. Health examination and follow up care 94.
31% took general health examinations. Of those,
the proportion of the workers, who were deter-
mined as C grade(in need of close examination)
was 43.86%. The proportion of the workers who

1) Department of Nursing, Kyung Book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Kyung Hee University

3) Anmed Forces Nursing Academy

4) Kim Chun Junior Nursing College

5) Po Hanf Sun Wanens' Junior College

6) Tap Gu Junior College

7) Po Hanf Sun Lim Womens' Junior College

8) Shin Il Junior College

9) Department of Nursing, Kyung Buk University

were determined as D grade was 22.19%. 13.28% of the workers evaluated at the D grade were taken as a gauge for temporary leave from work. While 8.7% and .09% of them were taken as gauge for a change in job, and or shortening work hours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workers who must have taken special examination was 65.04% and of those the proportion of the workers who actually took the examination was 98.55%. 75% of the workers who were recommended for follow up care were given follow up care. The special examinations were done the most frequently to detect the effects of physical agents (59.2%). Direct notice to individual workers was used the most frequently as a method of notification after a special examination

(61.2%). The length of time taken to receive the result of a special examination was less than 1 month (38.9%) and 36.7% had taken up to two months (36.7%). Most results of special examination were obtained within 2 months. The referral rate of consulting special examination by health managers was estimated at 95.9%.

4. 89.8% of the companies had their own company dispensaries and 75.5% of those had separate dispensaries. 32.7% of the companies designated local clinics for health management of workers. Industrial nurses performed health examination the most frequently (1.4 points). Health appraisal for work places were done the least (0.83 points).